

지역 매아리

부안해경, 과승 레저보트 적발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총경 박상식)가 부안군 변산면 하섬 인근 해상에서 수상 레저안전법을 위반한 레저보트 A호(2.92톤, 승선원 17명)를 적발했다.

25일 부안 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이모(54세, 남, 부안거주)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35분경 부안군 하섬 인근 해상에서 안개로 인해 방향을 상실해 변산파출소에 구조 요청했고, 신고 접수 즉시 구조대와 변산파출소 연 안구조정현장에 급파하여 확인한 결과 레저보트 A호의 정원은 10명이나 승선원이 17명인 사실을 인지하고 수상 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부안 해경 관계자는 "주말을 이용한 수상 레저 활동자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구명조끼 착용, 무면허 및 음주운행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레저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 해경은 레저보트 과승은 수상 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6호, 동법 제24조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 코아루천년가

정읍시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정읍시보건소는 간접 흡연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정읍 코아루천년가 아파트를 '정읍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기준은 공동주택 세대 중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정된다. 정읍 코아루천년가 아파트는 총 세대의 53.4% 동의를 얻어 공동이용하는 복도 및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 안내판과 현수막, 스티커가 부착되고 8개 동에 금연계단이 조성되며 건강 홍보관도 운영한다.

보건소는 "8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며,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협력해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한 금연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보건소에서는 운영 중인 금연상담실(☎539-6089)을 이용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제15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성료

방문객 15만명 2000여명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 · 농가소득 증대 기여

고창의 대표 농특산물인 복분자와 수박을 소재로 한 '제15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군민과 관광객 등 총 15만2000여명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선운산도립공원 특설무대에서 22일 진행된 군민대화합한마당 기념식에는 이길수 부군수, 이문식 축제위원장, 최인규 군의회 의장, 이수혁·유성엽 국회의원, 석기영 한빛원지력본부장, 각 지역농협장, 관내 기관단체장, 군민, 관광객 등이 참석했다.

올해 축제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난 독특한 즐거움을 제

공했다. 특히 더위를 한방에 날릴 수 있는 '미칠 수(水)있겠네 물총싸움'이라는 1경기에 3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인기를 실감했고, 장어낚시 등에도 많은 방문객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축제 기간 중 아간방문객을 위해 해 수박, 복분자 등을 주제로 LED 조형물을 전시하여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이전 축제와의 차별화를 뒀으며 관광자원과 농특산물과 연계한 축제콘텐츠 개발로 축제의 대표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밖에도 '전국 수박키빙 경진대회'는 수박을 활용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고 복분자 와 장어를 활용한

요리 개발을 위해 마련된 '유연수 셰프와 함께하는 쿠키쇼',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 판매하고 방문객과 군민이 복분자와 수박을 마음껏 시음·시식할 수 있는 시식행사 등을 진행해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했다.

또한 복분자·수박 직거래 판매장에서는 복분자와 수박을 시중가보다 30%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수박을 구입한 방문객들에게 주차장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통해 수박 1만1100량을 판매했고 복분자 생과도 1만5340kg 이상 판매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기회가 됐다.

이문식 축제위원장은 "고창의 대표 식품인 복분자·수박과 다양한 농특산물 축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많은 분들의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소방서, 하늘숲 어린이집

119소방동요대회 최우수상

'제17회 전북 119소방동요 경연대회'가 지난 22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펼쳐진 유치부 부안 대표로 출전한 "하늘숲 어린이집"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전북 119소방동요대회장에 출전한 전라북도지사, 비롯한 도내 유치부와 초등부 학생 및 학부모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립도서관, 내달 5일부터 여름방학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정읍시립도서관이 다채로운 여름방학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내달 5일부터 도서관포털을 통해 내달 5일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부프로그램을 보면 중앙도서관은 여름방학기간 유치원생인 대상인 '여름아 네가 좋아 정말 좋아'(5세~7세) 그림책 창작놀이, 초등학생 대상의 '여름독서교실 책으로 읽는 후기 조선시대(초등 1~6)를 비롯하여 '우리·영여 그림책이랑 놀자'(초등 1~2), '아우성 초등성교육'(초등 5~6)을 운영한다.

특히 내달 24일에는 나태주 작가와의 만남을 마련해 작가의 창작 세계와 시 읽기 방법에 대한 특강도 가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신태인도서관은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독서교실과 책과 함께 노는 전통놀이를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참여자 중 우수자를 선정해 시상장(1명)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1명)도 수여할 예정이다. 기적도서관은 8월 한 달 간 '도서관에서 하룻밤'(초등 2~3), 그림책이 좋아(초등 1~3), 어린이 사서학교(초등 4~6), 청소년 직업 특강 '꿈의 강연 The Dream'을 운영한다. '도서관에서 하룻밤'은 아빠와 함께 참여해 연극놀이 등 도서관에서 이색 체험 프로그램이다. 또 '꿈의 강연'은 웹툰 작가 양무, 건축가 오영욱이 그들의 직업세계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줄대기 · 인사청탁 뿌리뽑겠다”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이 공직사회 인사 줄대기, 인사청탁을 단호히 대처, 오히려 불이익을 주겠다고 25일 밝혔다.



권 당선인은 취임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인사 줄대기에 혈안이 되어 여기저기서 인사청탁이 쇄도하는 데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당선인은 "인사청탁을 한 직원들이 현재 시점에서 그만두지 않으면 불이익은 물론 오히려 징계를

주겠다"고 경고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또 "승진이나 전보인사는 해당부서의 근무경력과 능력, 근무평정, 각종 평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뤄지는 사안으로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다"며 "인사 청탁자에게 반드시 불이익을 줘 공무원 줄대기와 인사청탁을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권 당선인은 "민선 7기 새로운 부안은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조직운영을 핵심정책 기조로 펴고 있다"며 "인사는 조직의 존폐까지 좌우할 중요한 사안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계획을 수립, 개인 능력과 업무수행 자질에 따라 혁신적인 인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2018 정읍시-LH 도시재생 청년 해커톤' 심사는 지역 내 전북과학기술대학교, LH전북지역본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진행했다.

정읍시-LH전북지역본부, 2018 도시재생 청년 해커톤 성황

4-berry 활용 '해불자' 팀 대상

정읍시와 LH전북지역본부가 마련한 '2018 정읍시-LH 도시재생 청년 해커톤'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정읍시립박물관과 내장산국민여가캠핑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정읍 원도심 활성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는 청년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 제안에 참여토록 하고 일자리 문제와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 짧은 시간 동안 기획자와 개발자가 협업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경연이다. 1일 차에는 안테나 나태훈 대표의 특강과 현장답사 팀 빌딩(team building), 아이디어 회의가 진행됐고, 2일 차에는 아이디어 구체화 회의, 전문가 멘토링과 컨설팅, 결과물 발표 등을 거쳐 총 5개 팀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인 정읍시청에는 정읍의 특산물인 4-berry(복분자, 오디, 딸기,블루베리)를 활용한 로컬푸드 마켓과 한우거리 조성, 셰어 스토어 등을 제안한 해불자(해보자의 전라도 사투리)팀이 수상했고, 그 외 4개 팀이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뉴딜사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전국에서 대학생부터 만 39세 미만의 청년 약 40여명이 신청하는 등 성황을 이뤘고, 최종 심사를 통해 모두 30여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토론 전문가 또는 조력자)와 함께 조별로 원도심 현장투어 등을 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전략(비즈니스 모델) 등을 발굴, 직접 실행하고 결과물을 발표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mulberry wine bottle on the left and a collection of gift sets on the right. The text includes the brand name 'Mulberry Wine', a slogan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details about the wine's quality and availability. The gift sets are listed with their contents and prices: Gift Set 1 (750ml 2ea, 2ea/16%), Gift Set 2 (750ml 2ea, 1ea, 오프너/12%), Gift Set 3 (750ml 1ea/12%), Gift Set 4 (500ml 2ea, 2ea/12%), Gift Set 5 (375ml 5ea/13%), Gift Set 6 (500ml 2ea/12%, 복분자1ea/13%, 1ea, 오프너), and Gift Set 7 (375ml 2ea/13%). The website www.gangsanwine.com is also mentioned.